

사회

무등로 광주역 교차로~산수5거리

유턴 못해 불편... 사고 '위험수위'

운전자들 개선 목소리 높아

장성에 사는 박모(38)씨는 보험관계 일로 광주역 부근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려다가 혼쭐이 났다. 장성을 출발해 광주시 북구 운암동을 거쳐 목적지로 향하는데 가야할 곳에 좌회전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었다. 2km 이상을 가도 유턴지점을 찾지못해 좌회전을 해서 길을 돌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결국 예정된 시간을 30여분이나 지나 약속장소에 도착할 수 없었다.



진차량의 뒤에 자리를 잡거나 초행일 경우 상당한 거리를 가더라도 유턴을 못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선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광주 북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란에 "광주역에서 데이름 사거리까지 와서 유턴지역이 없어서 홈플러스 계림점 끝 목길을 한바퀴 돌아서 비보호 좌회전 한 다음 신호등을 건너야 회사일을 보고 가는 불편함이 짜증이 내네요"라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구간은 처음 교통운영체계계획을 세울 때부터 유턴의 필요성이 적어 현행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시정이 상무지구

장에 다니는 사람이야 광주역에서 미리 좌회전해 뒷길을 타고 들어오는 방법을 알지만 초행인 사람에게 이곳 위치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유턴 지역이 없어 애를 먹는다는 불만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유턴지역은 보행 상황 등을 무시하고 불법유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유턴 단속건수도 수십건에 달했다. 이곳 도로 주변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김모(47)씨는 "이곳 직

만취 교육청 간부가 간호사·경찰 폭행

해남경찰은 18일 만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와 경찰을 잇따라 폭행한 해남교육지원청 정보(57)과장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과장은 지난 14일 새벽 01시15분께 해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간호사를 발로 차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 2명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과장은 최근 새로 이사는 후배 장학사의 집에서 지

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과장은 사건 직후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병원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정 과장을 입건했다. 정 과장은 "독한 술을 많이 마셨다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져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피해자 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르신들 네일아트로 더 멋지게

18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빛고을 어르신 정타'에 참석한 노인들이 부대행사로 마련된 네일아트 코너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역대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전국 유통

여수해경, 5명 입건

여수해경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와 불법 의약품 등을 밀수,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40대 중국교포 여성(서울 거주)으로부터 밀수입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을 사들여 일반 구입자에게 택배를 통해 판매하거나 전국 성인용품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해경은 이틀로부터 시가 기준 1억 5000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압수했다. 해경은 한씨 등에게 이른바 짝퉁 비아그라를 판매한 중국 교포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제조과정이 비정상적인 만큼 잘못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오늘 제52주년 4·19혁명 기념식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는 19일 오전 10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52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4·19 혁명단체 회원 및 유족, 학생·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념식은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의 4·19혁명 경과보고에 이어 강운태 광주시장의 기념사, 4·19 노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50분에는 광주공원 4·19 영령 추모비에서 각급 기관·단체장의 헌화·분향과 함께 참배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항쟁 32주년 행사 확정

내달 5~27일까지 15중

5·18민중항쟁 32주년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18일 출범식을 갖고 '참여와 연대의 오월정신'을 구현하는 올해 행사의 주요일정을 밝혔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국립묘지 추모관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나간재 상임위원장과 김태종 집행위원장,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경률 광주시 인권담당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현 시대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 민중생존권의 위기, 남북관계 및 평화의 위기 등 총체적 위기"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연

대의 오월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맞아 5·18의 자부심을 느끼는 역동적인 32주년 행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5월 항쟁의 근원이었던 의외와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 내용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5·18민중항쟁 32주년에는 ▲놀이매 신명과 극단 토박이의 5월극(5월5일~27일) ▲5월 역사기행 '민주올레'(12일~27일) ▲5월 창작가요제(12일) ▲세계인권도시포럼(15일~18일) ▲광주시민 나눔의 날, 부활제(27일) 등 다음달 5일부터 27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바일 투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광주 동구 불법선거 연루자 19명 재판
“모바일 투표가 뭔지도, 선거법이 이렇게 무서운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18일 오후 광주지법 301호 법정.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사건으로 불거진 동구 불법선거 연루자 19명이 연이어 피고인석에 섰다. 이날 재판장을 맡은 형사6부 문유석 부장판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이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자세를 강조했다. 문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주인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죄의 경중이 있겠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무



청탁 대가 소나타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사건 처리 청탁과 함께 뇌물로 승용차를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 공안경찰서 송모(43)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동차를 뇌물로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경사는 지난 2009년 8월 북부경찰 근무 당시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인 송모(43)씨로부터 자신이 기소된 사건과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프로야구 승부 조작

김성현·박현준 징역

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성현·박현준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18일 경기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LG트윈스의 투수 김성현·박현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또 전 프로배구 선수 염모(30)씨와 핵심 브로커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씩을, 여자 배구선수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 전·현역 배구선수 6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전주 6명에게 징역 10월~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성현·박현준 선수는 뒤늦게 반행을 시인하고 뉘우친데다 경기조작 횡수가 많지 않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낙지 안 심심해” 손님끼리 몸싸움

상남시장

“주문한 산낙지가 ‘심심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던 손님들이 주인편을 들던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경찰서행했다.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아·46)씨 등 4명과 송모(41)씨 등 3명은 이날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한 낙지요리 전문점에서 서로 먹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 일행이 이날 식당에서 주문한 산낙지가 “심심하지 않다”라며 주인에게 항의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송씨 일행이 “이정도면 심심하다”라고 주인 편을 들자 말싸움 끝에 서로 폭행.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폭탄주 한국’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

10년새 7.3배나 증가

우리나라에서 10년 새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7.2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여성 유방암, 대장암 사망자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생명은 2011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9998건과 2001년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9790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인별 사망자는 2001년 1위 암(3239명), 2위 교통재해(1165명), 3위 뇌출혈(630명) 등이었다. 2011년에도 역시 1위는 암(4050명)이었고 그다음은 자살(901명), 교통재해(622명) 순이었다.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는 2001년에 20명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145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남성이 88%에 달했다. 폭탄주 등을 즐겨 마시는 음주습관 때문에 간질환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유방암과 대장암 사망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점도 특징이다. 2001년 121명(4위)인 여성 유방암 사망자가 2011년에는 237명(1위)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10대 9명, 여고생 폭행 치사 암매장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일산경찰은 18일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모(17)군 등 10대 9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일행 중 한 명의 집에서 여고생 A(18)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오전 2시께 집 근처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지트로 이용해진 이 집에서 A양에게 ‘왜 힘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5분, 해질 19시 08분, 달돋이 04시 29분, 달질 17시 25분
오후 늦게부터 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림 11/18°C, 목포: 흐림 11/18°C, 여수: 흐림 12/16°C, 나주: 흐림 9/18°C, 완도: 흐림 11/18°C, 구례: 흐림 8/19°C, 강진: 흐림 10/18°C, 예남: 흐림 9/18°C, 장흥: 흐림 8/18°C, 순천: 흐림 10/18°C, 영광: 흐림 9/19°C, 진도: 흐림 10/18°C, 전주: 구름맑음 9/22°C, 군산: 구름맑음 8/20°C, 남원: 흐림 7/22°C, 옥산도: 흐림 10/13°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시중독자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